

◆ 환경비전-환경기술 과제 수행업체로 선정 ◆

환경비전21은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 2차 연도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환경비전21은 1차 연도 축산 폐수처리기술 개발도 수행해 수질을 방류수 기준치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이미 마련했으며 액비이용이 가능한 처리공정도 확립한 상태다.

이번 차세대 핵심환경 기술개발 과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04년까지 4 년에 걸쳐 총 23억3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연구개발사업으로서 향후 회사의 기술력 향상과 매출증대에 큰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은 환경과 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기술을 집중개발,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정부가 1조원을 투자하는 환경기술 개발사업이다.

◆ SK케미칼 홍대표 환경사업 집중투자 계획 ◆

SK케미칼 홍지호(洪志昊) 대표이사 부사장은 지난 7월 3일 “회사의 미래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수처리 등 환경사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경사업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물문제의 경우 국내에서도 물부족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등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현재 수도권 일대 음식점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규모 수처리시설의 테스트 작업을 진

행중이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사업방향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밀화학과 생명과학부문에 대한 투자도 강화해 지난해말 기준 900억원대인 이 부문의 매출을 2~3년 이내에 4천억원대로 확대해 회사의 미래 주력사업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이사는 성숙산업 단계인 화섬원료 등의 경우 수요시장과 가까운 해외생산기지 건설 등 글로벌화를 원칙으로 최근 중국, 중동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가 생산기지 건설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 LG석화, 오염물질 제어장치 개발 ◆

LG석유화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촉매로 이용한 환경 유해물질 제어 장치를 개발했다고 지난 7월 1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환경 유해물질 제어장치는 ‘후대용 산화장치’(PCO)와 ‘난분해성 광촉매장치’로 폐수 대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적용, 개발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환경설비가 대규모 설비였는데 비해 이번에 개발한 장치들은 후대가 간편해 소규모 환경 유해물질이 배출되던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며 빛을 이용해 환경 유해물질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라고 회사측은 덧붙였다.

◆ 환경비전21, 오염물질 분쇄장치 특허취득 ◆

환경엔지니어링 전문업체 환경비전21은 지난 6월 26일 오염물질 분쇄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 특허는 회전체 안에서 폐수와 공기를 충돌, 혼합시켜 생화학적 후속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 그린케미칼, 미세먼지 억제제품 개발 ◆

인체에 치명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제품이 개발됐다.

환경 벤처기업인 그린케미칼(<http://www.green-chemical.co.kr> 대표 소재춘)은 석탄이나 각종 공사현장의 야적물 위에 뿌리면 투명한 막을 형성해 미세먼지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표면경화제를 개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제품은 용도에 맞게 물과 적당한 비율로 섞은 후 살수차 등과 같은 분사장비나 농약 분무장치 등을 이용해 미세먼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 뿌려주면 된다.

미세먼지란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각종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유발시키는 직경 0.01mm 이하의 작은 미립자로서, 기준치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급성사망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오염물질이다.

따라서 정부는 월드컵 기간 중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경기장 주변 일정한 지역에서의 공사를 금지하고 있다.

피막형 수용성 고분자수지 에멀전 용액으로 구성된 이 표면경화제는 막의 두께를 0.5mm에서 5mm까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 다소 인장강도가 요구되는 비포장도로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

막이 파열될 경우에도 표면경화제와 미세먼지가 서로 엉겨붙어 직경이 3-5mm 크기의 알갱이로 변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사현장의 진입로나 비포장도로 등에 살포할 경우 먼지로 인한 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경화제는 비닐아세테이트와 부틸아크릴레이트를 혼합한 후 합성과정을 거쳐 생성된 공중합체 수용성 고분자물질로서 생체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친화적 물질이다.

특히 석탄 등 광물과 혼합돼도 연소과정에서 유해가스를 생성하거나 열량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특성으로 토사나 시멘트 그리고 석탄 등을 운반, 이송, 비축할 때나 건설공사장, 토목공사장, 아파트 재개발 현장, 골재채취장, 절개지 공사장 등에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밖에도 경사가 급한 절개지 공사에서는 진한 농도로 살포하면 절개지 표면에 견고한 피막이 형성돼 토사가 비에 의해 유실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이 제품은 현재 포스코와 철도청 등에서 사용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건설업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